

우루와

KING URU



KING URU

대본·총감독 김명곤
 협력연출 방은미
 안 무 배정혜
 음악/지휘 원 일
 드라마터지 홍창수
 조 안 무 윤상진
 조 연 출 _ 설청일, 신동인, 이영호, 윤석안
 무대디자인 박동우
 의상/장신구디자인 최보경
 소품디자인 이경하
 조명디자인 박정수
 음향디자인 오진수
 분장디자인 최미경
 무대감독보 오상영
 특수분장 서영일
 영상촬영 김민우
 기술감독 김영봉
 조 명 _ 고상순, 주영석
 음 향 _ 한송현
 무대기계 _ 김동기, 이승수
 영 상 _ 범기창
 장치제작 _ 구재하, 이성현, 이원영
 소 품 _ 정복모, 채수형
 의 상 _ 김경수
 장 신 구 _ 엄인섭, 신종현
 분 장 _ 김충욱, 이수미, 김민경, 김복주, 이지현,
 김시래, 전유경, 김윤희, 서상숙, 김혜정
 협력회사 _ (주)페트라21,
 (주)에스피케이 얼라이언스,
 (주)디지털로닉스
 사 진 _ 김찬복
 기획·홍보 _ 김연수, 김은영

2000.12.14(Thu)~17(Sun)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4일(목) 19:00 / 15일(금) ~ 17일(일) 15:00, 19:00

7:00 p.m. Dec. 14(Thu) / 3:00, 7:00 p.m. Dec. 15(Fri) - 17(Sun), 2000 Main Hall,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후원 / 문화관광부 협찬 / 국민은행 교보생명 SK Telecom 인세협찬 / Hansol

한글제지

Cast 국립무용단



김남용 (무당/무사)

백형민 (무당)

윤성철 (무당/무사)



우재현 (무당/무사)

김윤수 (무당/무사)

진상석 (무당/무사/문둥병자)

정관영 (무당/무사/문둥병자)



박재순 (무당/무사)
정길만 (광디)

박성국 (무당/무사/문둥병자)

이현주 (무당)

김현전 (무당)



정제임(무당)

홍경일(무당)

장현수(무당/연자시녀)



김미애(무당/무희/바리보신)

김은영(무당/무희)

김영미(무당/연자시녀)

문지애(무당/무희)



이지영B(무당/연자시녀)

김진영(무당/무희)

오현주(광대)

Cast 국립무용단



정유진(무당/무희/물외여인) 박영애(무당/무희/물외여인) 한정혜(무당/무희/물외제관) 노문선(무당/무희/물외제관)



정보은(무당/무희/물외여인) 허 필(무당/무희/물외여인) 조 샘(무당/무희/물외제관) 이현경(무당/무희/물외제관) 임수정(무당/무희/물외여인)



이세범(광대) 정소영(무당/무희/물외여인) 조수정(무당/무희/물외여인) 손수경(무당/무희/물외여인)

Cast 국립국악관현악단



박경현(피리)

이석주(피리)

문영희(대금)

박재호(대금)



남경아(해금)

오경자(거문고)

김성미(거문고)

김미경(가야금)

김희정(가야금)



서보람(아쟁)

송희선(건반)

차영수(해금)
이상용(피리)

Cast

객원출연 · 반주



권태원 (부여왕/도쳐두목)

김기천 (행랑이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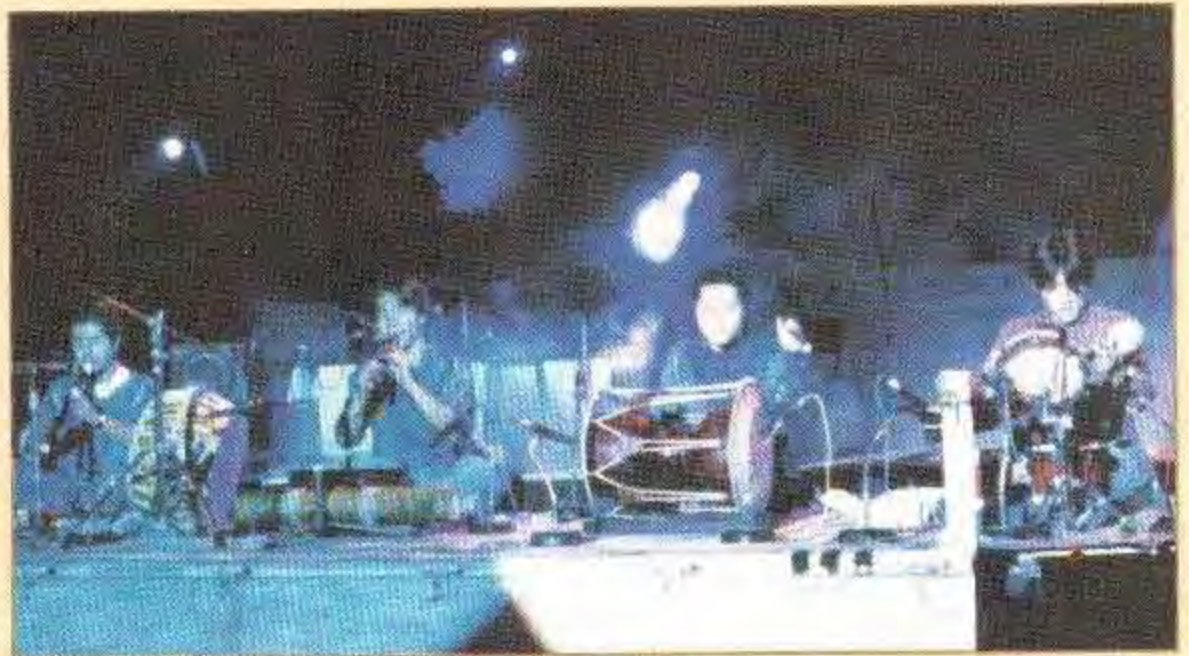
함태영 (무사/시체안부)

정용진 (우루분신/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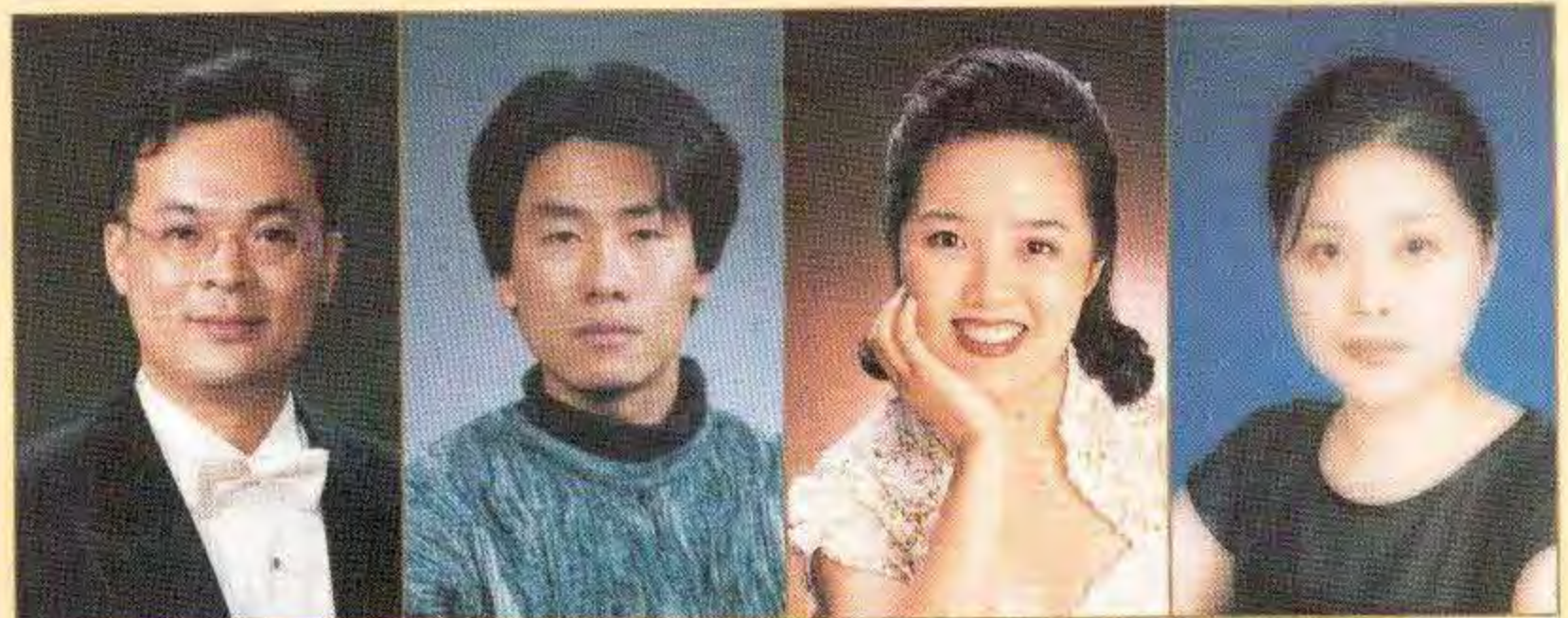


박종호 (무사/시체안부)

김도균 (무사/도적/사신)



공명 (타악그룹)



정형욱 (배너)

허철 (베이스)

고경필 (소프라노)

전수경 (소프라노)

이병훈 (건반) 이윤경 (건반) 민재현 (베이스기타)

Staff 스텝



김명곤(총감독·극본)

방은미(편집·연출)

배정혜(안무)

원일(음악)

홍창수(드라마디자이너)



윤상진(주만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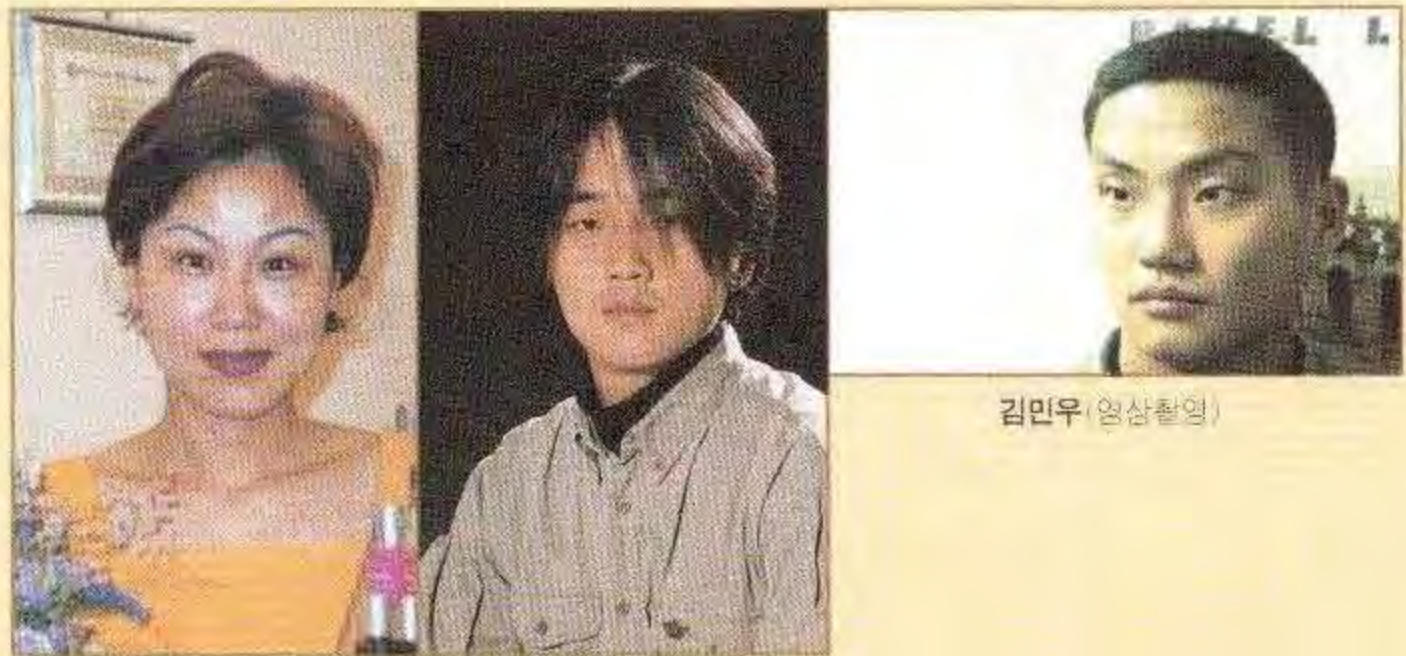
신동인(조연출)

설청일(조연출)

이영호(조연출)

윤석만(조연출)

기술감독 김영복
 조명 고상순 주영석
 음향 한송현
 무대기계 김동기 이승수
 영상 범기창
 장치제작 구재하 이성현 이원영
 소품 정복모 채수형
 의상 김경수
 장신구 임인섭 신종현
 분장 김홍옥 이수미 김민경 김복주 이지현
 김시래 전유경 김윤희 서상숙 김혜정
 협력회사 (주)페트라21, (주)에스피케이 얼라
 이언스, (주)디지털로닉스
 사진 김찬복
 기획·홍보 김연수, 김은영



서영일(특수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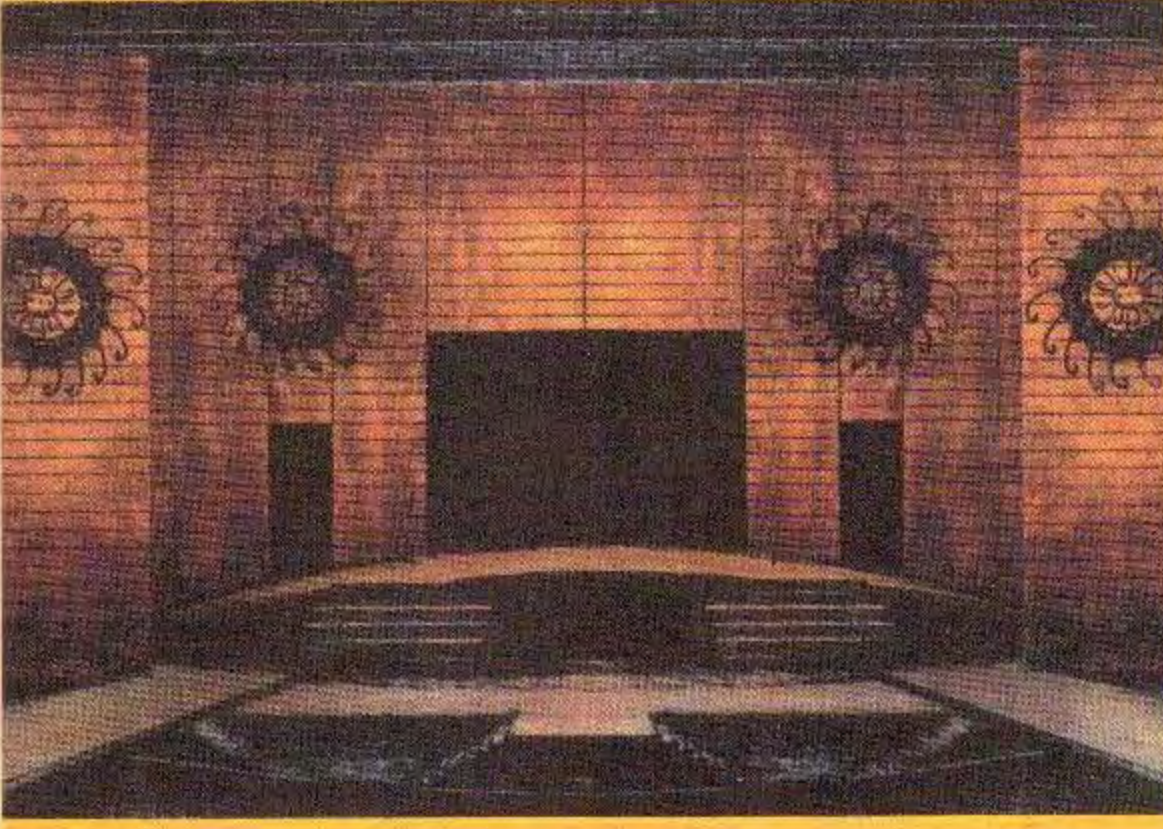
오상명(무대감독)

김민우(영상촬영)

stage 무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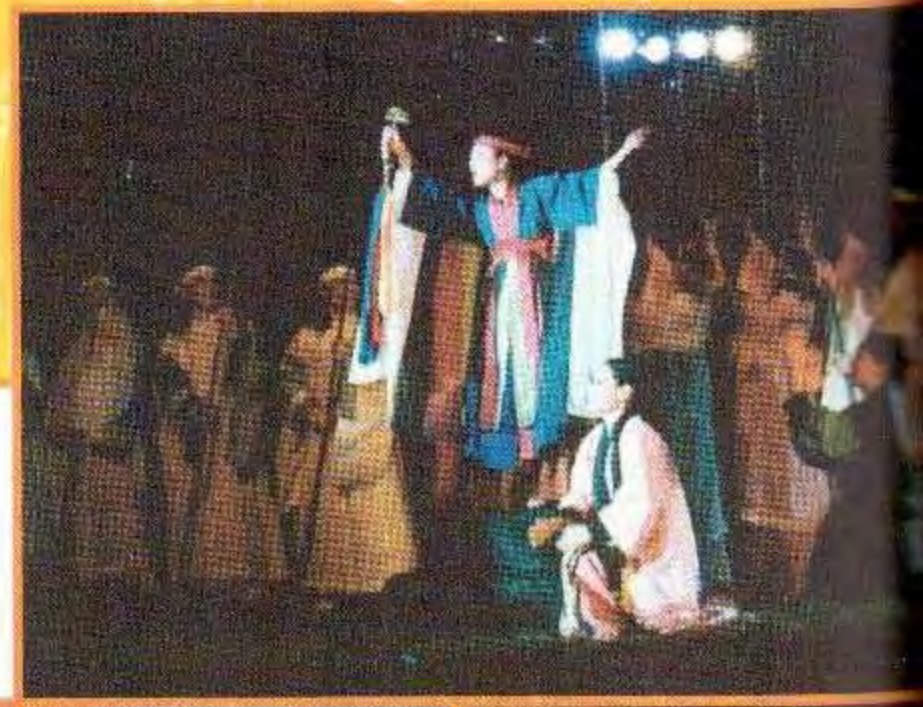


무대디자인 박동우





Costume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최보경

어느 연극에서도 어느 오페라에서도 무대 의상이 갖는 의미는 같다. 무대의상은 각 인물들의 성격과 신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각 인물들의 영혼의 모습을 그려낸다고나 할까.

전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보유품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면에서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 그런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장신구들은 고구려의 벽화를 참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우리 옛 조상의 찬란했던 모습을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장 : 광대들의 노래

제 1막

제 1장 - 우루왕궁 앞 소도

우루왕에게는 가와, 연지, 바리 세 딸이 있다. 천신제가 거행되던 중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바리공주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사를 통해 국가 통치권과 영토를 양위하게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듣게 된다. 그러나 우루왕은 세 딸에게 효심을 물어 땅을 분배하고, 딸과 부마들에게 통치권 양위를 하려하고 가와, 연지 공주는 효심과 사랑을 과장하여 영토를 분배받는다. 이를 반대하던 바리공주와 충신 매륵은 왕궁에서 쫓겨난다.

제 2장 - 성 밖의 거리

서자인 솔지는 출세를 위해 아버지인 고희 승지와 형 을지를 반목시키려 한다. 형 을지가 아버지를 죽이려한다는 거짓 서찰을 아버지가 보도록 만들고 계획대로 고희 승지는 을지를 조금씩 의심하게 된다.

제 3장 - 가와의 성

매륵은 변장을 하고서 우루왕을 모시게 되고, 첫째 공주 가와의 심복인 우화충이 우루왕에게 무례하게 굴자 그를 때리게 된다. 이를 빌미로 가와는 우루왕의 무사들과 광대들을 트집을 잡고, 끝내 우루왕은 그에게 사랑을 맹세한 큰 딸에게 버림받게 된다.

제 4장 - 들판

우루왕은 매륵을 통해 둘째 공주 연지에게 천

서를 보내고, 광대들은 가와에게 내침을 당한 우루왕을 가무와 꼭두극으로 위로한다.

제 5장 - 숲 속의 서낭당 앞

궁에서 쫓겨난 바리공주는 피로에 지쳐 숲속에서 잠이 든다. 꿈에서 어머니와 조상들의 혼령을 통해 피로 물든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된다. 잠에서 깬 바리는 무당을 만나 인도를 받는다.

제 6장 - 고희 승지의 집 솔지의 방 앞

솔지의 계략대로 을지는 도망을 가게 되고 이미 을지에 대한 의심이 굳어진 고희은 을지를 잡기 위해 무사를 풀어 추격한다.

제 7장 - 연지의 성

연지의 성에서 매륵은 우화충과 다시 싸우게 되고, 추밀에 의해 족쇄를 찬다. 우루왕이 연지의 성에 도착하자 연지는 호위무사를 없애기 위해 주연을 베푼다. 음식에 약을 타 무사들을 모두 무장해제시키고, 언니 가와에게 더 많은 땅을 준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고 선언한다. 우루왕은 연지에게도 내쫓겨 광야로 숨어든다.

제 8장 - 숲 속

영문도 모르고 쫓기게 된 을지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결국 거지 삼돌이로 변장을 하게 된다.

제 9장 - 숲 속의 서낭당

바리는 곳을 통해 두 언니에게 버림받은 아버



지가 광증(狂症)에 걸려 광야를 떠돌고 있으며, 병을 치료하기위 해선 무장승을 찾아가 천지수를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 길대부인의 예언을 듣게 된다.

제 10장 - 광야

우루왕은 두 딸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길대부인과 바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더 깊어간다. 그러던 중 거지 삼돌이로 변장한 을지를 만나고, 그를 '도사님'이라 부르며 거지 삼돌이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우루왕을 찾아온 고희과도 만나게 되지만 왕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한편 을지는 아버지와 마주쳤지만 아는체 할 수 없는 숙명에 고통받게 된다.

제 11장 - 늪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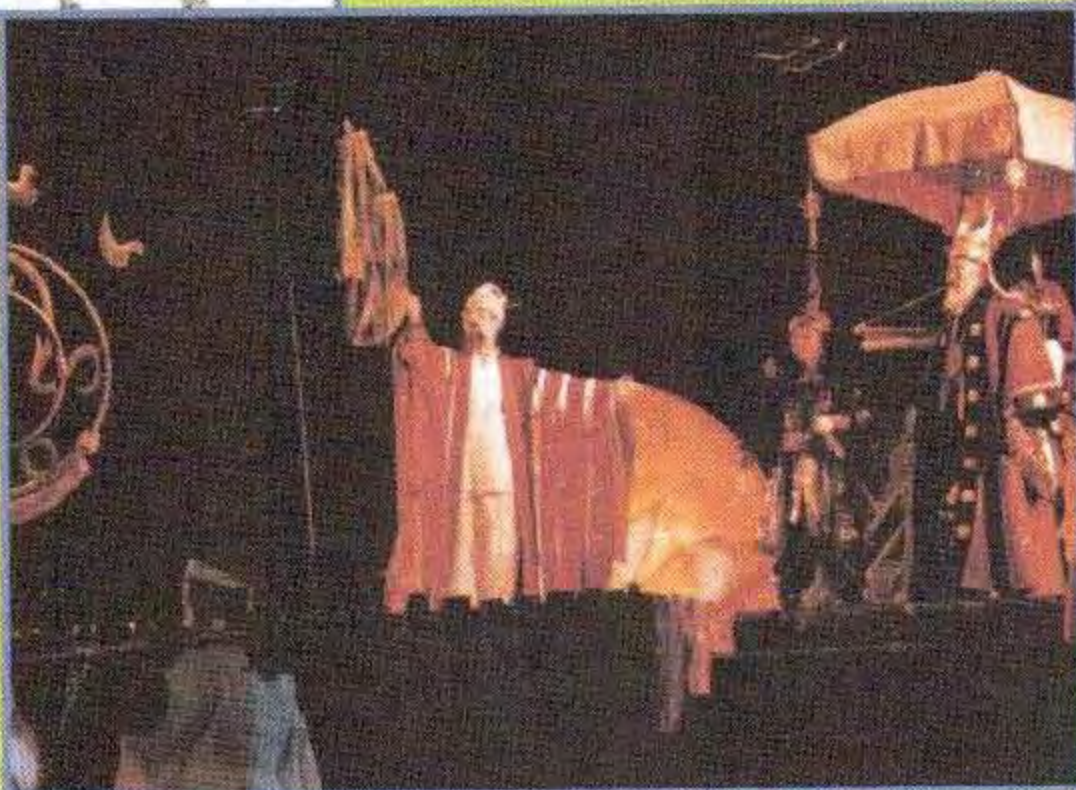
천지수를 찾아 길을 나선 바리는 바리는 성밖 거지들과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되고, 봉변을 피해 늪에 뛰어든다.



Accessory 소품디자인



소품디자인 이경하



Makeup 분장디자인



분장 최미경

분장은 등장인물의 얼굴형태를 극중 배역의 성격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한 사람의 Character가 극 안에서 조화되고 융화되는 과정에서 그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분장의 효과가 작중 인물의 이미지와 최대한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얼굴의 선과 면을 변형시키고 또한 얼굴 전체의 형태를 바꾸기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배우의 얼굴에 분장이 시작되기 전에 극에 부합되는 인물의 얼굴 형태를 위하여 극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분장디자인은 시작된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배역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 '우부왕'은 시대적으로 한국 고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 출발한 바, 고증에 의한 작업이 어려운 작품이다. 유추하건데 중국과 문화적 교류가 많았던 시기이기에 자생문화일지라도 중국과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후 존재하였던 삼국시대의 어느 한 나라를 연상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고증상의 문제점에 부딪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상력의 표현에 있었다.

'우부왕'은 극의 시간적 진행에 따라 후반부까지 다양하고 tight한 분장전환이 요구되는 곡이다. 우부왕은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배신에 의해 붕괴된 자아에서 결국 분노가 폭발, 광기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를 그리고 비리공주 역시 그 부드럽고 단아한 모습이 종반부로 갈수록 지지고 초월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눈을 밝히는 고졸, 매복의 떠돌이 무사로의 변장, 숨지가 거짓으로 꾀뚝에 자해를 하는 장면, 울지의 미처광이 분장, 대치되는 울지와 솔지의 모습까지 극중 인물들의 상관관계에 의한 심격표현과 상황의 전개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인물들의 변화되는 모습들 인간의 제각을 받는 무대 위에서 형상화시켜 보고자한다.



Mask 탈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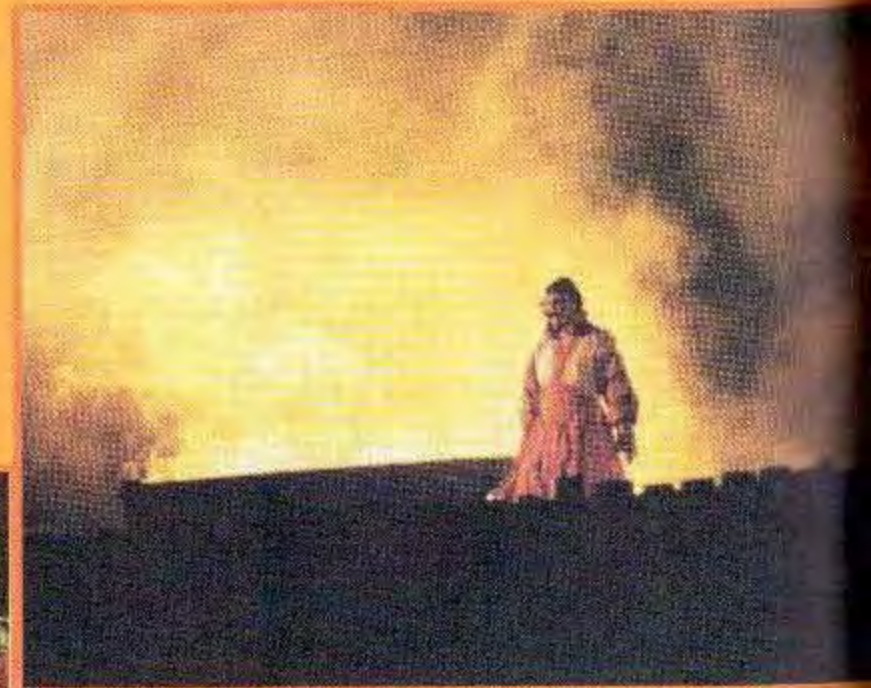


탈디자인 김남수

옛날 우리네 탈놀이에는 역할과 배역이 뚜렷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영역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탈의 역할이 소품으로서의 역할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기에 소품이 아닌 탈도 하나의 배우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재료를 목재로 선택함은 극중에서 요구하는 성격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배우들이 좀 더 편안한 시야 확보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여 역할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작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다. 아무리 좋은 꼭두각시 인형이 있어도 그 꼭두를 놀릴 수 있는 배우가 없다면 그 꼭두는 죽어있는 꼭두이기에 탈도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이번 작업에서의 중점은 관객들의 성격과 배우들의 외형적 이미지의 합성작업을 통하여 탈과 배우를 하나로 묶어 뚜렷한 이미지의 관객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혼신의 힘을 기울여 탈에 생명을 불어넣어 작품에 임해주신 관객역의 배우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Lighting.Sound 조명·음향디자인



조명디자인 박정수

조명이란 단순히 어두운 무대를 밝게 비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색깔의 빛과 조명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연을 보는 관객의 시각적 즐거움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분야이다.

이번 우투왕 공연에서 조명은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았다. 천신제를 지내는 도중 발생하는 일식의 효과, 딸들에게 버림받고 미쳐버려 광야를 헤매는 우투왕의 광기어린 모습을 강조할 수 있는 분위기, 부여곡과 의 전쟁 장면의 효과 등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경주 때와는 달리 실내에서 공연되며, 동시에 야외에서 느꼈던 조명의 효과를 충분히 살림과 동시에 넘어설 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컸다.

국립극장의 모든 식구들이 한데 모여 만들고 있는 우투왕 공연의 성공을 기원하며, 개인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조명이 되도록 애썼음을 밝힌다.



음향디자인 오진수

음향 디자인은 항상 2가지 측면이 대두된다. 배우를 위한 음향과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향이다. 전자의 경우는 무대 안에서 후자는 객석에서 이루어 진다. 중요한 것은 무대 밖 객석에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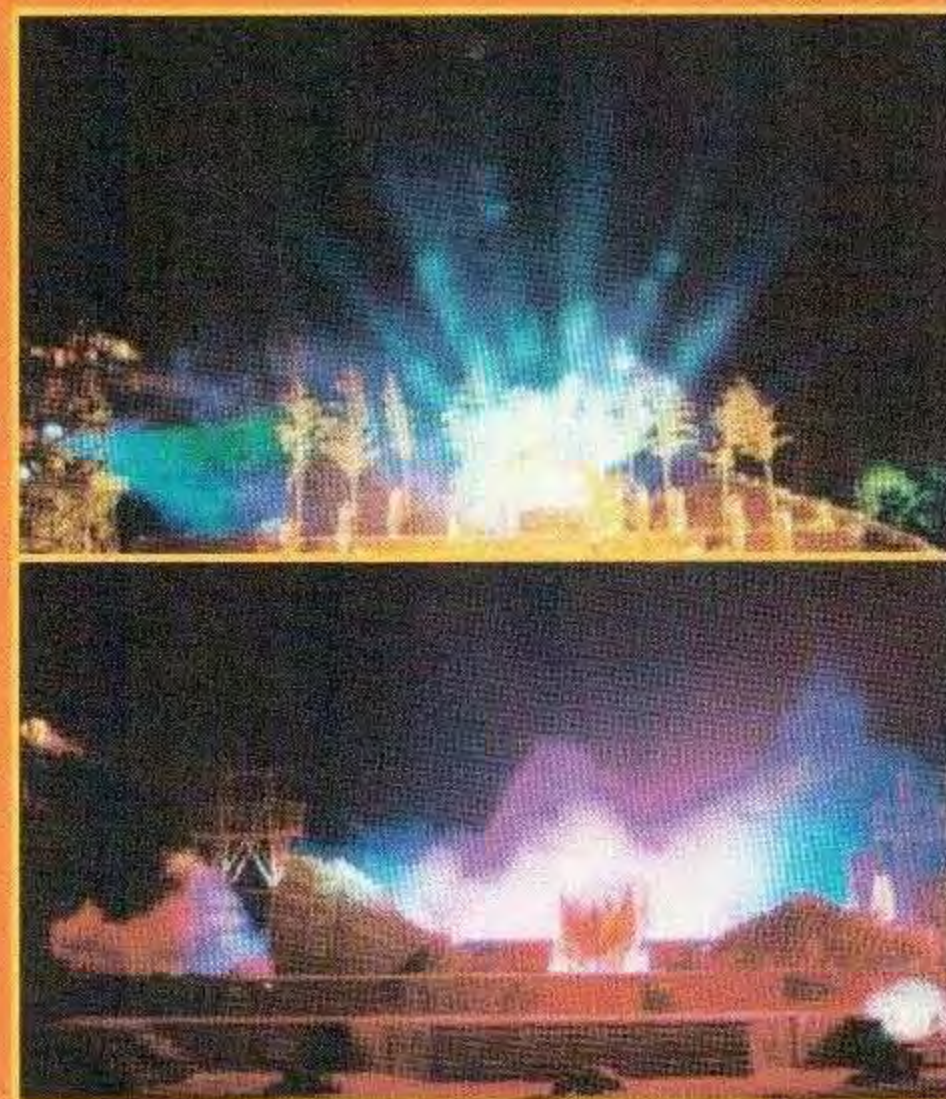
이번 작업은 몇가지 원칙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무대 위에서의 연기자와 소리의 방향을 일치하려 스피커를 배치하였으며 어느 객석에서도 고른 음압분포를 확보하려 한다. 넓은 공간감을 더욱 확장시키려 하며 음상일치로 장시간 공연 관람에도 피로감을 없애려 이미지 정의에 많은 생각을 하였으며 각종효과를 입체적으로 전달 될 수 있게 디자인의 방향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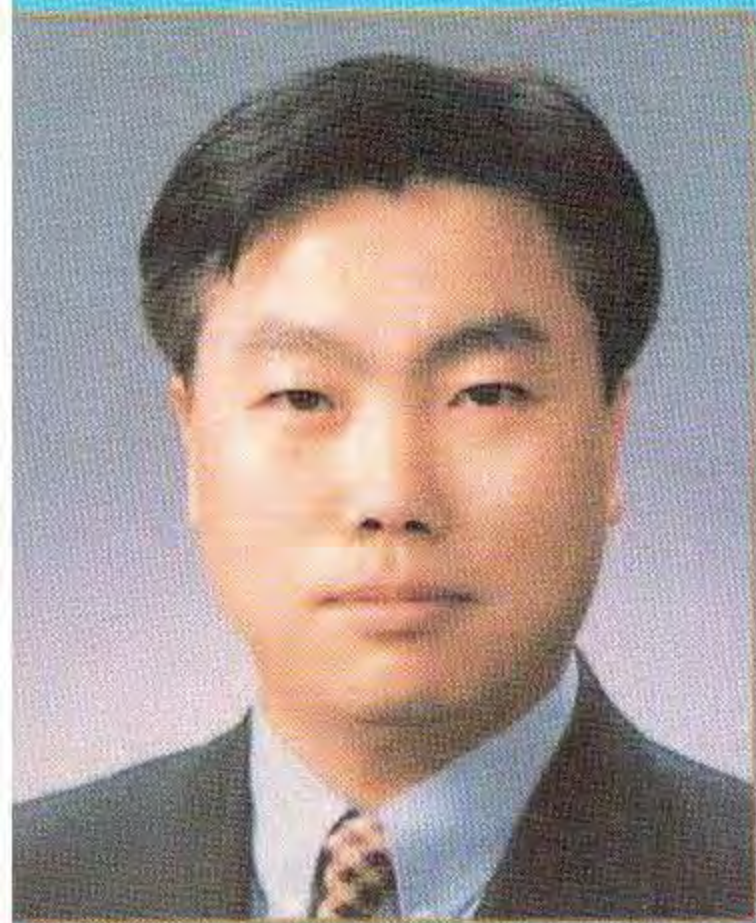
이들의 구상을 도와줄 수 있는 장비인 타이믹스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신호를 디지털 믹싱 콘솔(Full Digital Mixing Console)에 의하여 신호처리를 하며 아마하 PM1D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스피커의 설치는 무대장치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31채널의 무선마이크는 배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다. 광대 탈은 제작과정부터 소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제작하도록 요청하여 광대들의 노래를 때로는 포근하게 때로는 차갑게 하여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충실하게 처리하였으며 연출자의 의도를 잘 살리려 노력하였다.

수많은 입출력 소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총체극 "우투왕"공연이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Review 공연평



연극에서의 총체성은 관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진제조건을 내걸면서 문화적 풍요로운 사회 속의 새로운 예술성 내지는 연극적 각 요소의 물량적 편향성에 좌우될 소지도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연극의 현실이다.

한국의 연행예술과 서양적 연극 요소를 총망라하여 세계 무대에 내놓기 위해 심혈을 쏟아 만든 국립극장의 총체연극 우루왕이 신라의 고도 경주 반월성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10월(13-15일) 공연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우리의 고대 서사적인 바리데기 실화를 재구성하여 선사시대 한민족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우루왕과 가화, 연지, 바리 세공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과 애증의 갈등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연극의 주제로 마련된 생명과 상생의 환타지를 무리 없는 작품의 흐름을 통하여 작품의 총화적인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각 요소의 연극적 단일성이 총체적인 미적 가치를 만들어 보고 듣는 재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연극적 신선함이 묻어나는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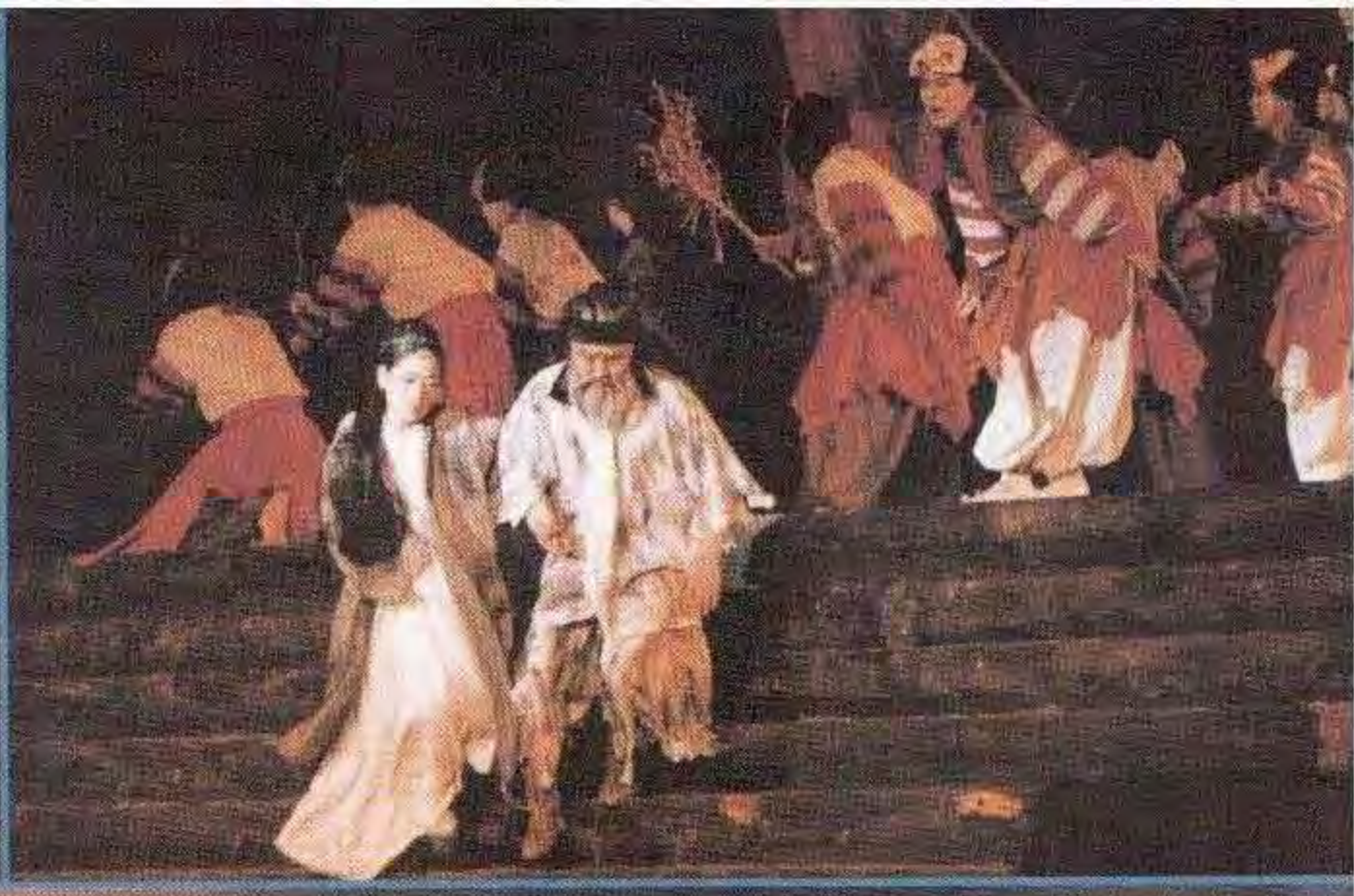
총체연극에서 적실한 연극적 요소의 표현은 의미의 논리적 통일성이 부족하다면 자칫 피상적인 묘사주의나 편집성에 빠질 위험성이 크게 사실이다. 우루왕은 연출의 창조적 해석에 의해 구성의 치밀함과 역사성이 있는 반월성터의 자연적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스케일이 큰 무대와 언덕, 망루, 고구려 벽화를 응용한 각종 무녀, 신라의 차매의 무대장치 기계를 이용한 승강 무대 등 무대공간을 적실하게 사용하게 하였으며 화려한 의상, 깃발 등 소품, 라이브 음악과 음향, 거대한 조명의 빛과 스모그 사용은 야외 공연에서의 산만함을 불식시키고 관객으로 하여금 옥내 무대와 같이 붙임끼 함으로써 연극적 요소의 표현적 의미의 통일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연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고르게 뛰어남으로써 잘 창조된 각 인물의 성격과 함께 춤과 노래, 굿 등 의식적 요소가 돋보였으며 특히 전쟁 장면의 진법무예는 스펙타클의 극치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코러스역인 광대의 무리들은 극을 이끌어가는 청량계 구실을 충분히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총체 연극 우루왕은 표현성에 있어서 연극적 요소의 논리적 통일성을 견지함으로써 보편적 의미체계의 표현 형식과 작품 면에서 동서양이 만나 작품의 독자적 고유 세계를 갖고 한국의 연극으로 뇌살아났다.

우리 연극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공연이었으며 우리 연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인 무대였다고 생각된다.

연출가, 가야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표원섭**



Sketch 공연 단상

김명곤 극장장님을 처음 만나던 날.....

국립극장에 김명곤 선생님을 만나 뵈리갔다. 상상했던 것 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 "이번에 작품을 하는데 어디 새로운 얼굴이 없나... 하구 안숙선 선생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나를 추천해 주시더라. 그래 한번 얼굴 볼려고 불렀다." 막 심장이 뛰어댔다... 드디어 나에게도...

첫 연습날...

2시 극단연습실에 모이기로 한날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10분 지각이다.

정각에 말씀줄 시작하셨는지 몰래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 한참 말씀 중 이셨다.

나눠준 대본을 살짝 펴봤다. 친율이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암튼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물 밑 듯 하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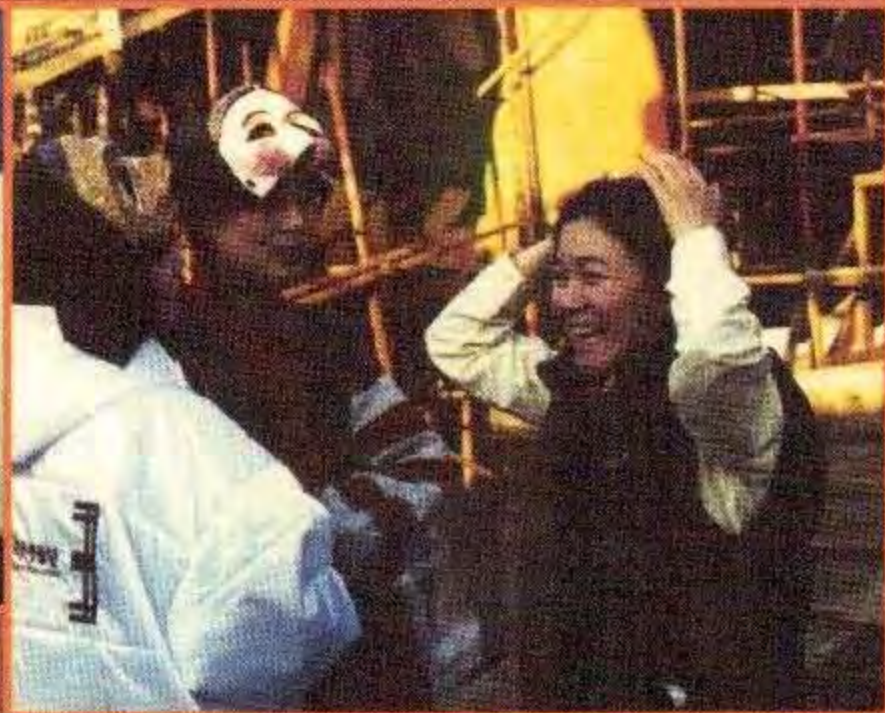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또한 만만찮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로 보여진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어제의 호기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마냥 무섭다.

조급하지 않게, 즐기면서.... 처음이니까!

어렵다.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 reading을 시작한지 열흘쯤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대사를 잘 읽고... 못 읽고...를 떠나서 연극이 된지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까지 연극은 이런 걸 껴야 하며 관람했던 나의 직접적인 경험들이 무너진다. 뭘 봤던건지도 모르겠다.

우는 연기가 안되면 그냥 울어버리자!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우는 장면은 특히 안 된다. 훌쩍대는 게 내가 해놓고 민망할 정도로 어색하다. 이제까지 그 짜증 나는 연기를 지켜보시기만 하던 김명곤 선생님이 급기야는 "울지 않으면 혼내켜서라도 울게 만들 껴야"라고 아주 조용히 말씀 하셨다.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며 "우는 연기가 안되면 그냥 울어버리자" 라고 30초만에 결론을 내리고 바로 아바마마를 부둥켜안고 울어버렸다. 막 서러워져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막상 사람들 앞에서 울어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난 왜 이제까지 이렇게 못 울었을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운다는 게 웬지 자존심 상하고, 창피 해서 맘껏 울지도 않았는데... 많이 어렸었는데, 나도 꽤 지독했나보다.





드디어 경주에 내려오다

왜... 무대가 너무 멋있다

굉장히 큰 3단 무대... 바람도 달도 같이 지어 놓은 세트 같다

계단을 하나씩 밟아왔다. 느낌이 정말 다르다. 평소대로 무대에 서는 것과는 뭔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이다. 무대 올라가
자진 몇 분간의 떨림이 난 마약(?)처럼 좋다.

연극무대에서의 그 빛 분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총리허설

오늘은 분장하고 의상 입고 퓌공연처럼 리허설을 했다. 3개월만에 처음 해보는 진짜 리허설이다. 정말로 집중이 잘됐다. 그
리 살짝하기도 않고 딱 적당한 날씨. 모든 조건이 적당했다. 난 아직 선인이라서 차투 분위기를 타는데 오늘이 최적인 것 같
다. 내일 관객들이 있어도 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첫공연

드디어 첫 공연을 치렀다.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추운데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다.

공연 시작 전에 긴장하는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가보다. 연습 때는 한 보여주시던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지 세니
있어졌다.

1장 천신제 할 때 달이 아래에 걸려 있었는데. 한 장면이 기말 때까나 달이 조금씩 솟아갔다. 기대했던 것만큼 이월하세는
않고 마냥 침침함이 바빴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따라 굉장히 과곤하다.

커튼콜을 기다리며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

어제보다 좋았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난 이번 공연으로 '남 앞에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나의 어설픈 연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
을 수 있는 용기도 얻었다. 오늘도 마지막 장면에선 어김없이 울었지만 제일 슬펐던 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는 장면이었
다. 술한 일등을 겪고 이 세상에 다정히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서러워진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약 5분 정도 되는 것 같다.

안숙선 선생님 얼굴을 보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났다. 대책없이 우는 나를 조용히 가슴에 꼭 껴안아서 등을 톡톡도
거리웠다.

관객들도 돌아가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종파티를 한다고 분주했다. 나는 무대 세트가 가까워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많이
뜨도 나고 칭찬도 듣고 3개월 무대끼며 연습해온 게, 아쉽고 허무해진다.

바리공주들 이선희



Prologue : Clowns singing

Act 1

Scene 1 - A Sacred Place in front of King Uru's palace

After a religious service to the gods of heaven, King Uru announces he will distribute his kingdom among three daughters depending on their filial devotion and abdicate from the throne. When Maereuk, a royal retainer, and Princess Bari oppose to his plan, the King casts them out.

Scene 2 -On a street outside the castle

Solji, Goheul Seungji's son born of a concubine, sets about a plot to set his father against brother Eulji.

Scene 3 -In Gahwa's Castle

Maereuk, in disguise, keeps attending on King Uru. When he happens to beat up Uhwachung, Princess Gahwa's right-hand man, Gahwa takes advantage of the incident and throws out the King.

Scene 4 -In the wilderness

King Uru dispatches Maereuk to Princess Yeonji's castle. The clowns manage to cheer up the abandoned King.

Scene 5 -In front of a village shrine in the woods

While sleeping in the woods Bari dreams of bloody future of the kingdom. When she awakes from the dreadful dream, Bari is guided by a shaman.

Scene 6 - in front of Solji's room at Goheul Seungji's residence

Falling prey to Solji's wife, Eulji is chased after by Goheul's soldiers.

Scene 7 - In Yeonji's Castle

Maeruk fights Uhwachung again and consequently is fettered by Chumil. When King Uru arrives at Yeonji's castle, Yeonji throws a feast to get rid of the guards. Again cast out by Yeonji, the King heads for the wilderness.

Scene 8 - In the woods

Without realizing the situation, Eulji becomes a fugitive and disguises himself



as a beggar under an assumed name of Samdori.

Scene 9 -at a village shrine in the woods

During exorcism Lady Gildae, Bari's mother, tells through a medium that Bari should look for Mujangseung to get the Heaven's Water.

Scene 10 -In the wilde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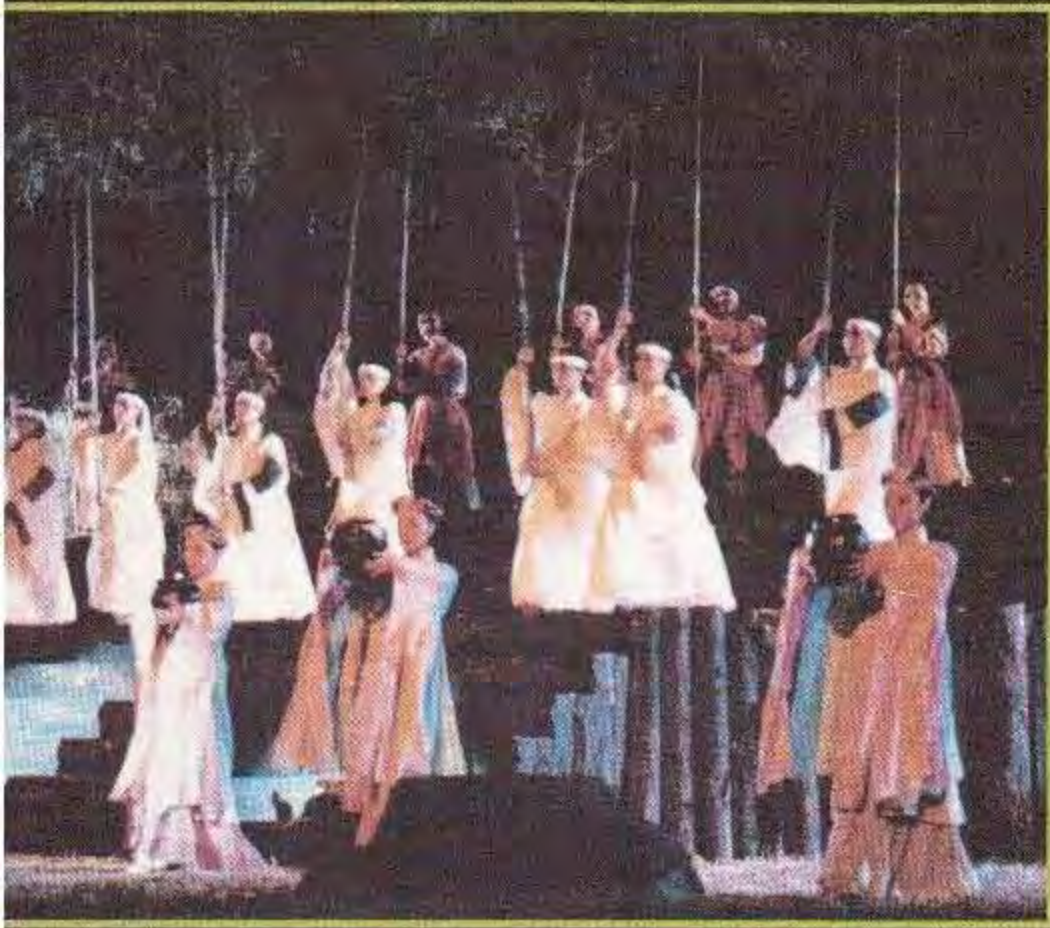
King Uru comes across Eulji in disguise, and Goheul comes to see the King.

Scene 11 - Swamp

Exhausted Bari comes across a band of beggars and lepers. Afraid of meeting a mishap, she jumps into a swamp.



Synopsis 줄거리



제 2막

제 1장 - 추밀의 밀실

솔지는 아버지인 고희이 두류국의 첩자라는 거짓 밀서를 꾸며 둘째 부마인 추밀에게 전달하고 그 공을 인정 받아 장군으로 승진을 한다.

제 2장 - 들판, 광야의 움막

매륵과 만난 고희은 우루왕의 두 딸들이 우루왕을 암살할 것이라는 음모를 알리며 우루왕을 두류성으로 파신시킬 것을 권유한다. 광기에 빠진 우루왕은 거짓으로 미친척하는 을지와 광대들과 함께 광야를 헤메다가 사악한 딸들에 관한 재판놀이를 한다.

제 3장 - 도적들의 소굴

거지들을 피해 늑으로 뛰어내렸던 바리는 또 다시 도적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의 소굴로 끌려온다. 바리가 지닌 청동거울을 통해서 바리가 우루왕의 셋째공주라는 사실을 알게된 도적두목은 바리를 남루한 복장으로 변장시키고 힘을 내라는 충고를 한 후 돌려보낸다.

제 4장 - 연지의 성안

솔지의 밀고로 첩자라는 누명을 쓴채로 사로잡힌 고희은 솔지의 흉계로 자신이 을지를 내쫓았음을 깨닫게 되고 이어 잔인한 추밀에게 두 눈을 뽑힌다. 그러나 추밀 역시 그의 잔인한 행동에 분개한 부하에게 칼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제 5장 - 가화의 침실

가화는 자신의 침실에서 솔지와 정사를 나눈 후에 상처를 입고 죽은 추밀을 대신하여 군사를 지휘하라고 한다. 가화의 남편 야노는 연지의 사신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솔지의 음모로 꾸며진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제 6장 - 천지수 위 무장승의 오두막

바리는 아버지를 광증에서 치료할 수 있는 천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천산의 명의 무장승을 찾아 헤메다가 지쳐쓰러진다. 바리는 천지수로 뛰어내리는 무장승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병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천지수를 구하게 된다.

제 7장 - 광야의 한 곳

홀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을지를 내쫓은 것을 괴로워하고 자살을 시도하나 행랑아범의 지혜로 목숨을 구한다. 이때 마침 광야에서 여우잡이 놀이를 하던 우루왕 일행은 눈이먼 고희을 만나 신세를 한탄한 후에 다시 광야를 헤메이게 된다. 홀로 남은 고희은 우화총을 만나 죽을 처지에 빠지게 되나 숨어서 아버지인 고희을 보호하고 있던 을지가 우화총을 죽이고 고희의 목숨을 구한다.

제 8장 - 연지의 막사 안

남편의 상종인 연지는 솔지와 막사 안에서 정사를 나눈다. 변장한 을지가 등장하여 야노에게 가화의 음모가 적힌 우화총의 밀서를 전달하며 모든 것이 솔지의 흉계였음을 알려준다. 변장한 을지는 야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자신을 불러 모든 것을 밝힐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다.

제 9장 - 강가의 평야

광야를 헤메다 지쳐 쓰러진 우루를 발견한 바리는 천지수를 먹여 광기에 들린 우루의 정신을 되살린다. 드디어 형제국인 조선국과 두류국간의 피의 전쟁이 시작된다. 가까스로 전쟁으로부터 몸을 피한 우루와 바리는 솔지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는 처지가 된다. 바리는 우루왕을 대신하여 솔지가 보낸 자객의 칼을 맞고 강물에 뛰어든다. 우루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셋째딸 바리가 목숨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한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바리는 우루왕과 재회하나 우루왕은 바리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바리는 죽은 우루왕을 안고 천지신명에게 죽은 혼령들을 위로해달라고 절규하며 무너가되어 상생의 춤을 추며 노래한다.

종장 : 광대들의 노래



Act 2

Scene 1 - Chumil's secret room

Solji writes a false letter to Chumil informing that Goheul is a spy for Duryu Kingdom and gets promoted for it.

Scene 2 - In a mud hut in the wilderness

Goheul informs Maereuk of two daughters' plot against the King's life. Mad Uru wanders about the wilderness along with Eulji and the clowns. They set a mock trial on the wicked daughters.

Scene 3 - In the den of the bandits

Bari gets caught by bandits and is taken to their den. The bandit leader makes Bari put on rags for a disguise and releases her with words of encouragement.

Scene 4 -In Yeonji's castle

Solji's secret information leads Goheul to capture and Chumil has Goheul's eyes pulled out. Chumil gets slashed and

fatally wounded by his own man.

Scene 5 - In Gahwa's bedroom

After making love to Solji, Gahwa orders him to command the army on behalf of Chumil. Yeonji's reveals Solji's conspiracy to Yano, Gahwa's husband.

Scene 6 - At Mujangseung's hut above the Heaven's Water

Bari searches around Mujangseung to get the Heaven's Water. Passing the test by Mujangseung she finally obtains the Heaven's Water that can save her father's life.

Scene 7 - Somewhere in the wilderness

Goheul agonizes over his foolish act of abandoning his son Eulji. At the moment he tries to kill himself, he comes upon King Uru and his company. When Goheul almost gets killed by Uhwachung, Eulji comes to rescue him and kills Uhwa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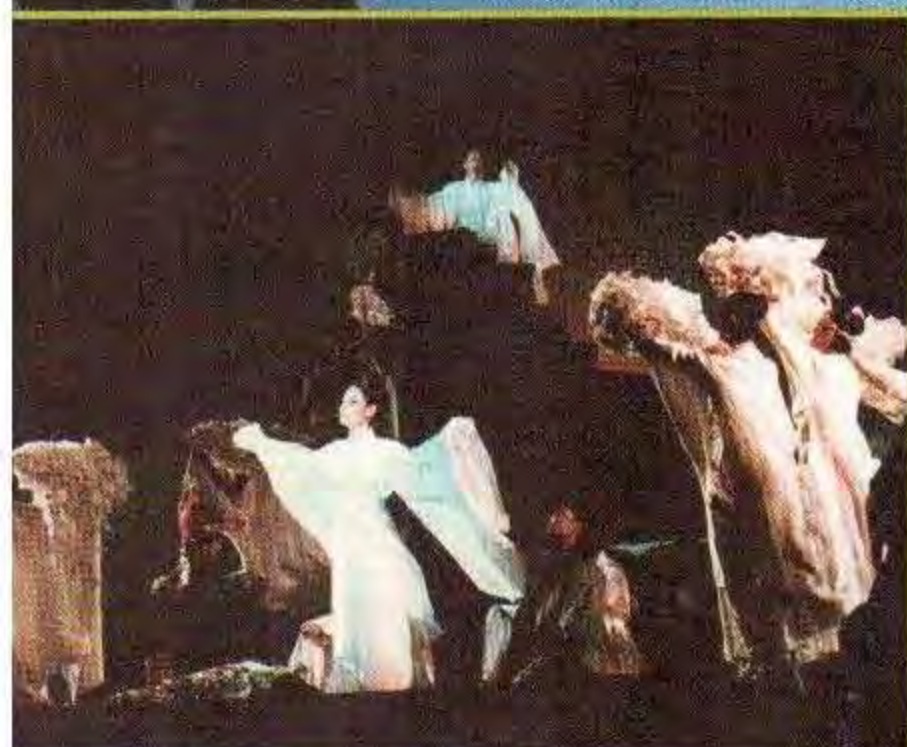
Scene 8 - In Yeonji's barracks

Yeonji makes love to Solji in the barracks. Disguised Eulji delivers Uhwachung's secret letter to Yano and asks Yano to call him up when the war is won.

Scene 9 - In the plain by a river

Upon finding her father Bari gives him the Heaven's Water, and King Uru recovers from madness. Uru and Bari escape a battle only to come to Solji's capture. They reunite after barely escaping the assassin's attack, but King Uru dies. Bari, now a shaman, sings and dances for the spirits of the dead.

Epilogue : Clowns singing



Cast



김성기(우루왕) 이선희(바리공주/더블캐스팅) 박애리(바리공주/더블캐스팅)

◀◀ 카리스마와 내면의 부드러움을 함께 갖춘 뮤지컬 전문 배우. 이제 우루왕의 광기어린 연기로 우리에게 온다!

◀ 간단한 오디션만으로 전격 캐스팅! 판소리, 한국 무용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에비스타로 그녀의 잠재된 에너지가 연출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현재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정단원이 된지 1년 반만에 주역급으로 부상할 만큼 발군의 실력을 지녔다. 창극으로 다져진 소리와 무용, 풍물 등에 뛰어난 그녀는 '바리공주'를 통해 한층 성숙해진 실력을 선보일 것이다.



Cast 국립극단



장민호 (고을승지)

김재건 (주말대신)

박상규 (아노대신)

이상전 (우락촌)



이혜경 (엄지공주)

권복순 (카화공주)

이영호 (매특승지)

최원석 (술지)

김진서 (무사)



박종현 (거지/무사/승려수)

한윤준 (음지)

최진영 (청년광대)

최교식 (거지/무사/그릇하인) 이미옥 (서채유족/무문시녀)

안지은 (초녀광대)



박만하 (동지/거지/엄지시녀)

조근혜 (바리시녀)

나지형 (곡하는여인/엄지시녀)

남 옥 (거지/기혹시녀)

현승진 (거지/기혹시녀)

Cast 국립창극단



안숙선(길대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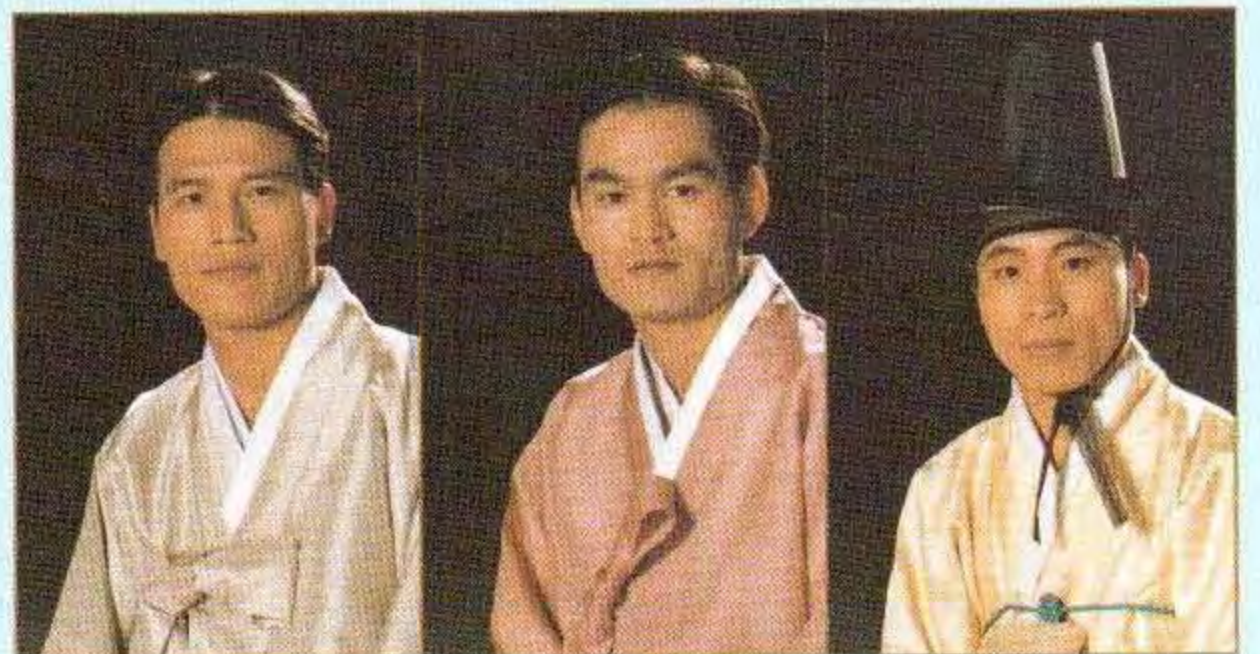


윤석안(수경대)

권하경(여경대)

김미나(방창)

이광원(방창)



한승석(제관/무장승/부여임부관)

조영규(방창)

남해웅(방창)



정영호 (방장)

정영호 (방장)

나태욱 (무당)

박노훈 (랑장)



김길동 (거지/도적/무사)

김유경 (방장)

최운서 (방장)



손성운
(거지/도적/자객/무사)

전영출
(거지/도적/무사/고을하인)

이향수 (랑장)

김혜영 (랑대)

신설희 (랑대)

조성호 (랑대)